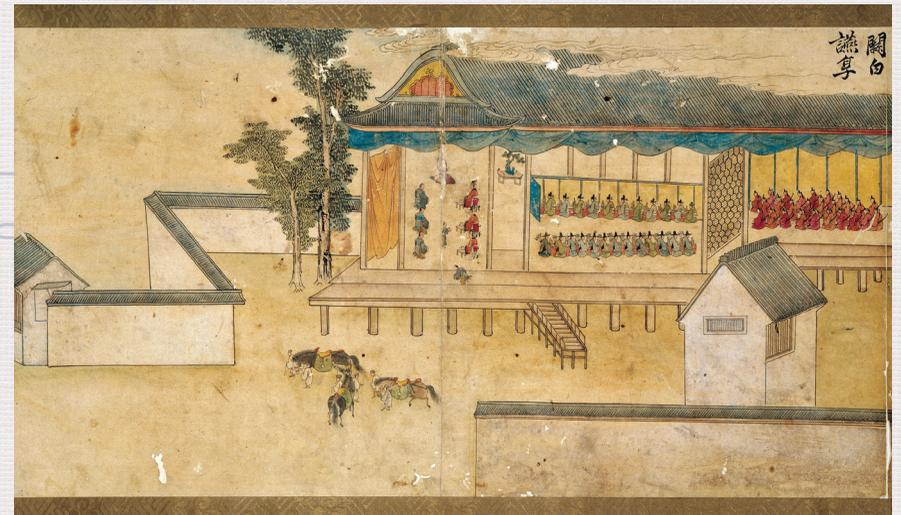


18세기 글로벌 지식인 담와 홍계희(洪啓禧) 학술대회



1760년, 경진년 연행도첩 산해관도내



1748년, 조선통신사 관백연향(關白嚙享), 이성린의 사로승구도



(財)文化領土研究院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TERRITORY

2021년 **11월 26일** (금) 13:30~18:00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216호 (융합교육 강의실 2)



주최: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재)문화영토연구원
주관: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후원: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

세계적 보편성의 시각에서 다시 보는 한국 문화

최근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의 위기를 넘어 마침내 일상회복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이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 또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인류는 또 다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뚝뚝 앞으로 걸어 나아갈 것입니다.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도 실로 오랜만에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문화를 통한 선의의 경쟁이야말로 인류의 절실한 열망인 평화와 행복에 도달하는 지름길임을 확신하고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세계문화의 한국화를 추구해 온 (재)문화영토연구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세계적 보편성의 시각에서 한국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시련을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쓸 수 있었던 지력은 바로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되어 온 우리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우리 문화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우리 문화 속에 내재해 있는 세계적 보편성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는 아쉬움이 없지 않았습니니다. 이점은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과도한 민족주의 경향이 배타적 민족주의로 변질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뿌리 깊은 불신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동아시아 각국이 열린 마음으로 상대의 역사를 이해하고 자기 문화가 가진 보편성의 뿌리를 확인함으로써 배타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야만 이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18세기 조선의 글로벌 지식인 담와 홍계희를 조명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동아시아 문화의 보편성과 정체성을 탐색하는 첫 번째 시도입니다. 이를 계기로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앞으로도 '보편성과 고유성'의 변증법적 종합을 지향하며 '문화영토' 담론을 동아시아 문화, 나아가 세계 문화를 대상으로 확대해가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서 18세기 조선과 담와 홍계희 연구에서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들들을 모셨습니다. 가까이 발표와 토론, 좌장의 역할을 맡아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풍성한 담론의 장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홍 성 구**

개회 (13:30 ~14:00)

- | **개회사** _ **홍성구**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 | **축 사** _ **권영진** (대구시장)
- | **축 사** _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주제발표 (14:00~16:40)

- | **사 회** _ **홍승우** (경북대)

▶ 14:00~14:20 **기조강연 _ 홍일식** ((재)문화영토연구원)
문화영토시대의 민족문화와 담와 홍계희

▶ 14:20~14:50 **주제발표 1 _ 김승대** (문화재청)
경세학 저변을 통해 본 담와 홍계희 연구
- 연행(燕行)과 통신사행(通信使行)을 중심으로 -

▶ 14:50~15:20 **주제발표 2 _ 구지현** (선문대)
1748년 무진통신사(戊辰通信使)의 문화교류
- 홍계희 관련 필담사료(筆談史料)를 중심으로 -

▶ 15:20~15:30 **중간휴식**

▶ 15:30~16:00 **주제발표 3 _ 정은주** (한국학중앙연구원)
담와 홍계희의 통신사(通信使) 기록화
- 1748년 무진통신사(戊辰通信使) 사행을 중심으로 -

▶ 16:00~16:30 **주제발표 4 _ 김영죽** (성균관대)
1760년 홍계희가 만난 서구와 동아시아
- 이의봉(李義鳳)의 북원록(北轅錄)을 중심으로 -

▶ 16:30~16:40 **중간휴식**

종합토론 (16:40~18:00)

▶ 16:40~18:00 **문화영토와 21세기 한류문화** (조선시대 지식인을 중심으로)

좌장 : **정재훈** (경북대)

토론 : **김정우** (고려대)

이상규 (국사편찬위원회)

김현미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준호 (경기도박물관)

정훈식 (부산대)